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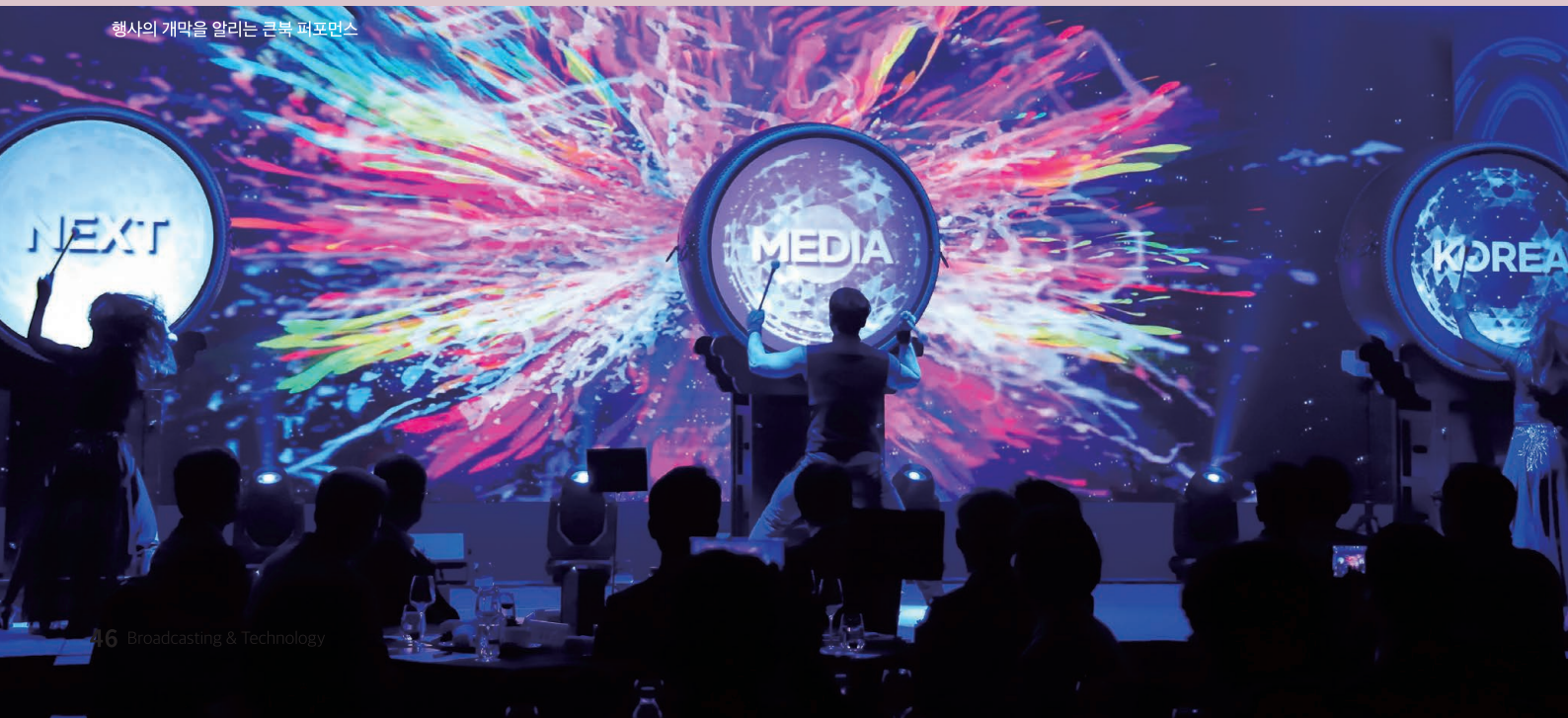


## 2025 차세대 미디어 페스티벌 개최

시의 물결, 미디어의 진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방송산업의 미래 전략 모색 및 방송미디어 업계 간 교류를 위해 '2025 차세대 미디어 페스티벌'을 지난 12월 17일부터 이틀간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작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을 맡았으나 올해부터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관을 맡아 개최되었다.

글. 이진범 방송과기술 기자 / 자료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AI Waves Media in Motion



개회사의 강도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진흥국장

국내 대표 방송·미디어 행사로 '인공지능(AI)의 물결, 미디어의 진화(AI Waves, Media in Motion)'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방송사(지상파, IPTV, 케이블TV, 위성, PP 등), 제작사 등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미디어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 올해로 11회째인 이번 행사는 △ 방송콘텐츠 대상 시상식 △ 기조연설 △ 방송·미디어인의 밤 △ 미래전략 컨퍼런스 △ 인공지능 기반 방송·미디어 장비 전시 및 체험 △ 방송콘텐츠 투자유치 설명회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행사 첫날인 17일에는 식전 행사로 방송콘텐츠 기획개발과 방송인 인공지능 영상 공모전 설명회 등 방송콘텐츠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행사의 시작에서는 개막행사로 큰북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어서 AI와 미디어의 상생을 주제로 한 영상이 상영되었다.

개회사로 나선 강도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 “인공지능이 방송·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방송콘텐츠 제작 및 유통 방식 전반을 혁신하고 있다”라며 “이번 행사가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환영사에서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은 먼저, 방문신 한국방송협회 회장과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에게 마이크를 넘기며, 덕담을 요청했다.

방문신 회장은 “K-컬처가 세계적으로 인기이지만 K-콘텐츠의 인기에는 착시 현상이 있으며, 넷플릭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지만 이에 반해 국내 방송사는 제작과 유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국내 미디어 업계의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황희만 회장은 “케이블 업계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AI를 이용해 제작 환경이 개선되어 높은 품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언급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이상훈 원장은 넷플릭스의 창업기와 유튜브의 창업기에 대해 소개하며, “AI를 적재적소에 활용했기에 두 서비스가 지금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며,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12월 12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라디오 통합 플랫폼'에 대해 보고되었다.”라며 “현실을 극복할 시도는 해보아야 한다.”라며 공감을 이끌어냈다.



환영사의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



국내 미디어시장을 염려스러워한 방문신 한국방송협회 회장



AI와 함께 성장할 필요성을 언급한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Field Issue



축사 중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축사 중인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다음으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영상을 통해 '2025 차세대 미디어 페스티벌'의 개최를 축하하는 축사를 전했다. 개막식 행사의 마지막으로는 주요 내빈 행사로 LED 터치 퍼포먼스가 진행되었고, 기념사진 촬영이 이어졌다.

이어 개막식과 방송콘텐츠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반의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작 중 공모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작에 대해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인간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한국방송공사(KBS)의 <트랜스 휴먼>이 대상을, △ <모범택시3>(드라마) △ <신인감독 김연경>(비드라마) △ <화산, 인간>(공공·공익 장편) △ <마지막이 처음일 당신에게>(공공·공익 단편) △ <미국에 부는 한국식 집밥 열풍>(해외 한국어방송)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제작환경 혁신에 기여한 이종풍 EBS 기술기획부장이 한국방송협회 공로패를 받았다.



이종풍 부장의 공로패를 대리 수상한 최재주 EBS AI 플러스팀 팀장



2025 방송콘텐츠 대상 - 최우수상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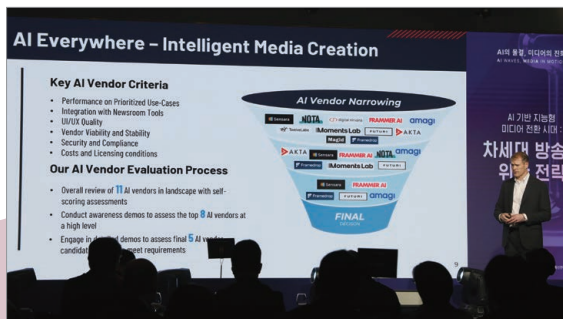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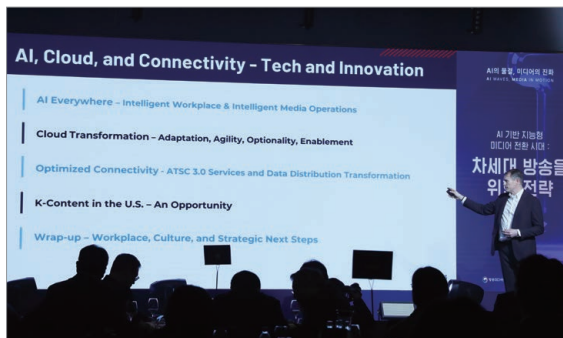


2025 방송콘텐츠 대상 - 대상 수상작

2025 방송콘텐츠 대상 시상식 수상작

상명	수상작	
대상	트랜스 휴먼 (한국방송공사)	
최우수상	드라마 시리즈	모범택시3 (스튜디오에스)
	비드라마 시리즈	신인감독 김연경 (㈈문화방송)
	공공·공익 장편	화산, 인간 (한국방송공사)
	공공·공익 단편	마지막이 처음일 당신에게 (㈈연합뉴스티브이)
	해외 한국어방송	미국에 부는 한국식 집밥 열풍 (YTV Ame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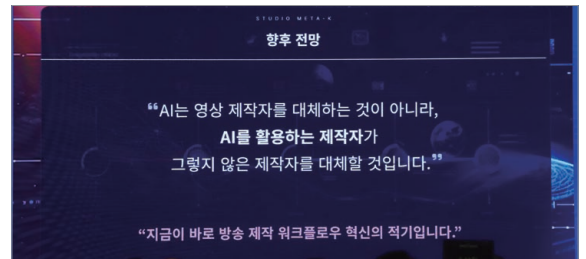
AI로 인한 미디어 시장의 변화에 대해 설명한 마이크 크라랙 싱클레어 방송 부사장



이날 기조연설에는 마이크 크라렉(Mike Kralec) 미국 싱클레어 방송(Sinclair Broadcast Group) 부사장 겸 최고기술 책임자가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미디어 전환시대: 차세대 방송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크라렉 부사장은 5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방송 채널을 확보한 미국 거대 지역 방송국인 싱클레어 방송에서 20년 이상 방송기술 혁신을 주도해 온 미디어 전문가다. 강연에서는 AI와 Cloud, Connectivity(ATSC 3.0)에 대해 기술과 서비스의 변화로 바뀐 미디어 환경에 대해 소개되었다.


이어 김광집 스튜디오메타케이 대표가 '인공지능 프로덕션 시대, 한국형 지적재산권(IP) 제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연설을 이어갔다. 강연에서는 불과 2년 만에 놀랍게 성숙한 AI 기술에 대해 소개되었으며,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있는 AI 버추얼 아티스트 현황, 생성형 AI 기반의 콘텐츠 제작 솔루션 개발에 대해 설명되었다. 제작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생성형 AI는 프리비즈 작업, 대규모 군중씬 대체, 역사적 이미지 구현, 인서트 및 와이드 컷 대체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 분쟁과 딥페이크 위험, 일자리 구조 변화의 당면 과제 및 리스크를 해결해야만 하며, 마지막으로 "AI는 영상 제작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제작자가 그렇지 않은 제작자를 대체할 것이며, 지금이 바로 방송 제작 워크플로우 혁신의 적기"라며 AI가 방송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었다.

저녁에는 '방송·미디어인의 밤' 행사를 열고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업계 종사자들과 올 한 해 성과를 공유, 축하하며 소통했다.



AI 제작 현황에 대해 소개한 김광집 스튜디오메타케이 대표

둘째 날에는 인공지능 시대 방송콘텐츠 및 플랫폼의 미래 전략 논의를 위한 '미래전략 컨퍼런스'를 열고, 총 3개 세션으로 각 분야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인공지능이 열어나가는 콘텐츠의 다변화, 플랫폼 주도의 케이(K)-콘텐츠 글로벌 생태계 구축 등에 대한 발제가 이뤄지며, 문화방송(MBC)의 '신인감독 김연경-스파이크로 여는 새로운 방송'을 주제로 제작 과정에서의 고민과 실행 사례 공유 및 신진 제작자에게 실질적인 영감을 주는 내용으로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도 펼쳐졌다.

이 외에도 한국방송공사, 도스트일레븐, 캐논, 파나소닉 등 4개 방송사와 기업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장비 시연 전시회가 열려 인공지능 영상 제작 및 자동 편집·자막 생성 시스템 등 방송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산업 진흥 유공자 표창을 받은 10인의 미디어 분야 전문가들

